조선 후기 한성부 상류주택의 반빗간 연구

A Study on BanBitgan in High-Class Housing in Hanseong-bu (漢城府), Latter Part of the Joseon Dynasty

강인 선*
Kang, In-Seon

홍승재**
Hong, Seung-Jai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about Banbitgan of Anchaе in High-Class Housing in Hanseong-bu (漢城府), Latter Part of Joseon Dynasty, by the drawings of Jangseogak Library. which were drawn the figure of house in Hanseong-bu (漢城府), during from the middle part of 17th Century to the end of 19th Century. These drawings were drawn in the form of Gangado ((間架圖)), the layout and floor plan, the function of room of each houses can be examined. Focusing on drawings which the room name was written among those drawings, ascertainable form of Banbitgan. This Study has treated particular houses which houses were verified form of Banbitgan. As the result, it was investigated that Anchaе of upper class housing in Hanseong-bu (漢城府), as the place where large-scaled housework was managed, its attached space has ever been developed. Especially, in this Study, by means of concretely research on the space organization of Anchaе along with space composition and connection method of Banbitgan, the upper-class housing in Hanseong-bu (漢城府), it was quite examinable on the architectural figure of the upper-class housing in Hanseong-bu (漢城府), During the latter part of the Joseon Dynasty, which was not known well in the meanwhile.

Keywords : The Drawings in Jangseogak Library, Gangado, Hanseong-bu, Upper-Class Housing, Anchaе, Banbitgan

주요어 : 장서각 가옥도면, 간가도, 한성부, 상류주택, 안채, 반빗간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조선시대는 신분제에 따라 가대와 집의 규모, 장식 등을 제한하였는데 조선후기 한성부 상류주택은 가사규제를 거의 지키지 않고 대규모로 건축되었다.¹⁾ 한성부 상류주택은 그 규모가 큰 만큼 다양한 공간으로 구성되며 각 영역들이 세분화된 특징을 보인다. 공간의 성격에 따라 영역을 나누어 보면 크게 안채, 사랑, 행랑, 사당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 중 가장 많은 가옥규모를 차지하는 것은 안채 영역이다. 이는 안채가 가정생활의 핵심공간으로 다양한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안채는 안주인의 거처와 부속공간이 연결되면서 효율적으로 구성되는데 부속영역이 특히 발달한 모습을 보인다. 이 부속영역을 반빗간이라 한다. 반빗간은 부엌을 기본으로 다양한 실을 구성하였다.

반빗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옛 자료는 안악3호분 벽

화가 있으며 현존하는 가옥은 조선후기 창덕궁 후원에 건축된 연경당이 유일하다. 그러나 최근 공개된 장서각 소장 가옥도면 일부에서 반빗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 상류주택의 반빗간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장서각 소장 가옥도면은 간가도 형식으로 그려진 도면이다. 도면의 명칭상의 인물과 주변 현황으로 등으로 그 작성 시기를 추정해 보면 17세기 중반부터 19세기 말 한성부 내 주거의 모습을 그린 것으로 추정된다.²⁾

가옥도면은 각 칸마다 실명이 표기되어 있어 각 집의 배치와 공간구성, 평면구조 및 실의 기능 등을 살펴볼 수 있다. 특히 가옥의 규모와 함께 안채, 사랑채, 사당 외의 부속공간까지 모두 표현되어 있어 기초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한양 상류주택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최근 가옥도형을 통해 가옥의 위치 및 도시적 변화 등이 연구되면서 그 사료적 가치가 입증되고 있다.³⁾

이밖에 한성부 상류주택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가

*정회원(주저자), 원광대학교대학원 건축공학과, 공학석사

**정회원(교신저자), 원광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Corresponding Author: Hong, Seung-Jai, Dept. of Architecture, Wonkwang Univ., 344-2 Shinyong-dong, Iksan, Chonbuk, South Korea. E-mail: sjhong@wku.ac.kr

이 논문은 2010학년도 원광대학교 교비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1) Hong, S., & Kang, I. (2011). A study on scale and space composition by domains of upper-class housing in Seoul, during the latter part of the Joseon dynasty. Journal of 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22(1), 95-102

2) 장서각 소장 가옥도면에 대한 개요 및 간가도에 대해서는 홍승재 (2009). 장서각 소장 가옥도면. 근대건축도면집 해설편. 한국학중앙연구원. pp. 23-39 참조

옥으로는 윤현궁(1863~1873년), 낙선재(1847년), 연경당(1827년 추정)⁴⁾, 건청궁(1873년), 윤보선가옥(1870년), 박영효가옥 등이 있으나 부속채까지 온전하게 남은 곳은 찾아 볼 수 없다. 낙선재, 연경당, 건청궁은 궁궐 내 건축된 것으로 당시 상류주택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나 궁궐 내에 취사와 관련된 수라간 등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 직접적인 살림이 운영되는 일반 상류주택의 안채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동안 한성부 상류주택에 관계된 연구는 연구자료 부족으로 인한 한계가 있었다. 특히 반빗간과 관계된 연구는 반빗간이 안채의 부속공간으로서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 가옥도면을 통한 반빗간 영역에 관한 연구는 안채의 주요 부속 공간인 반빗간의 모습을 어느 정도 규명할 수 있는 기회라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장서각 소장 가옥도면과 반빗간의 모습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들을 통해 반빗간의 공간 구성 및 그 연결 수법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연구 대상 범위는 장서각 소장 가옥도면 중 실명이 기록되어 있는 가옥들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가옥도면에서 반빗간의 모습이 확인되는 가옥은 모두 6집으로 <Table 1>과 같다. 연구 대상 가옥의 규모는 가옥도면에 그려진 방안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하였으나 방안이 없는 도면은 AutoCad 2008를 통해 방안에 그려진 건물 한 칸을 기준으로 방안을 재작도 하여 규모를 산출하였다.

Table 1. The Drawings in Jangseogak as Research Objects
(Unit: 間)

No.	DN. ⁵⁾	Name	Land area	Building area
1	143	小公洞洪高陽家圖形	1141.5	172
2	150	士大夫家構造配置圖形	437	77
3	151	士大夫家韓屋構造圖	697.5	87
4	154	里門內具允鉉家圖形	988.5	133
5	160	鑄洞李惟命參判家配置圖	468.5	160
6	161	淸平尉宮平面圖	1,168	165.5

본 연구에서 반빗간 영역의 범위는 안주인의 거처인 정침 측면 또는 인접한 곳에 위치하는 부속 공간 일대로 한

3) 선행 연구로는 ① 장서각, 홍승재(2009). 장서각소장 가옥도형. 近代建築圖面集 -해설편. ② Jeong, J. (2008). Consideration about the Diachronic change of Urban tissue and Architecture in Seoul - from analyzing of Gaokdohyung drawn in Joseon Period -. Koran Association of Architectural History, 58(3) ③ Jeong, J. (2012).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of Nakseonjae through Comparisons with Hanyang's Upper-Class Houses in Late Joseon Dynasty. 21(1), 7-20 p 등이 있음

4) 연경당 건립 시기는 김동욱(2004). 연경당 재건시기에 대한 재론. 건축역사연구, 13(4)에 따라 순조 27년인 1827년 건립 추정 의견을 따랐음.

5) 도면번호는(DN)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2009). 「近代建築圖面集-도면편」의 도면 번호를 따랐음

정하였다.⁶⁾ 반빗간의 구분은 공간적 성격에 따라 구분된다. 연구대상 가옥들은 모두 정침과 반빗간이 평면상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공간적으로 볼 때 별도의 영역을 형성하고 있다. 정침은 전·후 퇴를 둔 겹집형태로 대청, 안방, 건넌방 등 주요실을 둔 반면 반빗간은 홀집으로 방, 청, 창고, 헛간 등의 실로 이루어져 위계에 차이가 있다.

또한 반빗간은 취사행위가 이루어지는 부속공간으로 안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부역을 포함하고 있다. 주위에 야외 작업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후원, 창고, 부속 마당 등을 두어 효율적인 가사노동 동선이 마련되어 있어 그 공간적 성격이 구분된다.

Figure 1. Domains of Ancha were Subdivided by Entrance Circulation (1,4)

반빗간의 공간구성은 배치형태, 실의 명칭, 주변 건물과 마당과의 관계를 통해 분석하였다. 실구성은 가옥도면에 부엌(廚), 마루(廳), 방(房), 창고(庫), 헛간(虛) 등의 기록을 따랐으며, 실명이 표기된 방향과 퇴칸의 위치에 따라 마당의 성격을 파악하였다. 정침과 반빗간의 연결 수법은 건물의 위계적 구성과 상부구조 연결을 추정하여 단면도 형식으로 작도하였다.

II. 반빗간의 이론적 고찰

1. 반빗간의 정의

사전에서 반빗간(飯備間)의 의미는 단순히 ‘찬간(饌間)’이라 하여 집에서 반찬을 만드는 곳을 지칭하고 있다.⁷⁾ 그러나 주남철은 궁집(宮家)이나 대가(大家)에서 별도로 채를 짓고 반빗아치들이 음식을 장만하며, 빨래, 다듬질 등의 집안일을 하는 곳이라 정의하고 있다.⁸⁾ 반빗간을 사전적 의미로 해석하면 단순히 식사 준비를 위한 공간으로 부엌(廚)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주남철의 정의에 따르면 반빗간의 공간적 의미는 단순히 부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부엌과 함께 집안일을 수행할 수 있는 실들이 포함

6) 본 논문에서 안채는 안채영역을 의미하며 안채 각 부분은 편의상 정침, 익랑, 행랑 등으로 구분하였음. ‘정침’의 사전적 의미는 장기인(1985). 「한국건축사전」에 따라 의례를 행하는 대청과 안방, 건넌방 등 주요실이 배치되는 부분을 정침이라 하였음.

7) 국립국어원(<http://stdweb2.korean.go.kr/>). 표준국어대사전

8) 주남철(2010). 한국건축사. 서울: 고려대학교출판부, p. 412.

된 별도의 공간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주남철의 반빗간 정의를 따라 큰 규모의 부엌을 포함한 별도의 부속공간을 반빗간영역이라 하였다.

2. 반빗간의 구성과 활용

현재 초기 반빗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자료로는 고구려고분인 안악 3호분 벽화가 있다. 안악 3호분은 당시 지배계층의 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 벽화에서 부엌은 2칸 규모로 맞배지붕을 올린 독립된 형태이다. 아궁이, 부뚜막, 굴뚝이 그려져 있으며 술을 올리고 조리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고구려는 부분온돌을 채택한 시기로 취사가 이루어지는 부엌이 난방과 무관하게 독립된 공간으로 정착한 것으로 보인다.

Figure 2. Early Form of Banbitgan in the Wall Paintings of Anak Tomb No. 3

이러한 반빗간의 모습은 조선후기 건축된 연경당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연경당은 사대부주택의 모습으로 건축된 상류주택으로 당시 대규모 상류주택에서는 취사를 목적인 반빗간을 별채로 두고 활용했음을 알 수 있다. 연경당 반빗간은 안채 후원에 반빗간영역이 위치한다. 반빗간채는 ㄴ자 형태로 남향하고 있고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다.

Figure 3. Banbitgan of Yeongyeongdang

이 밖에 반빗간이라 추정되는 건물로 윤현궁 수리 시에 철거된 창고건물이 있다. 이 건물은 이로당 서쪽에 위치하고 있었다.⁹⁾ 여러 차례 건물에 변형이 있었으나 광, 창고, 마루, 방 등의 실 구성과 창호를 볼 때 생활 보조 공간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기단에 설치된 돌절구와 인접한 곳에 둔 우물 2기를 통해 취사를 목적으로 한 공간이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9) 서울특별시(1993). 雲峴宮 실측조사보고서. 서울: 서울특별시. p. 110, 주남철(2003). 궁집. 서울: 일지사. p. 187

Figure 4. Banbitgan of Unhyen Palace (The source of the Drawing: 서울특별시(1993). 雲峴宮 실측조사보고서. 서울: 서울특별시)

반빗간은 좀 더 폐쇄적인 형태로도 나타나는데 조선시대 궁집의 모습을 그린 「인평대군방전도(麟坪大君坊全圖)」가 있다.¹⁰⁾

Figure 5. Form of Banbitgan in Painting by the Name of Inpyeongdaegunbangjeondo (麟坪大君坊全圖) (The source of the Drawing: 주남철(2003). 궁집. 서울: 일지사)

「인평대군방전도」에서 인평대군궁집과 용흥궁은 모두 안채 주위로 ㄴ자 형태의 부속영역들이 형성되어 있다. 이 영역은 공간의 성격으로 볼 때 안채의 부속공간으로 반빗간의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위자료들을 볼 때 조선후기에 궁집과 같은 일부 대규모 상류주택은 취사 및 가사보조공간으로 반빗간을 두고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반빗간 조성배경은 당시 사대부의 생활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조선시대 상류층은 봉제사(奉祭祀), 접빈객(接賓客)을 중요하게 여겼다. 해마다 기제사와 차례 등 많은 수의 제사가 있었는데 제수(祭需)와 친인척들의 음식 마련은 안주인이 관여하여 안채 부엌에서 준비되었다. 접빈객은 가문의 품위와 가장의 사회생활과 연결된 활동으로 접객을 위한 식사 및 다과 준비, 술 빚는 일 역시 부엌에서 행해진다.¹¹⁾ 이처럼 가사를 경영하는 사대부가에서는 가사 활동과 관련해 안채에 넓은 규모의 부엌과 이에 맞는 수장 공간이 요구된다. 이러한 요구를 반빗

10) 규장각에 소장된 「인평대군방전도(麟坪大君坊全圖)」는 17세기 중·후반에 그려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그림으로 인조의 셋째 아들 인평대군의 제택과 효종의 잠저인 용흥궁의 모습을 담고 있다.

11) Han, H. (2008). The life of Yangban women and feminine leadership in the late Chosun era - focusing on 17th century Heng'jang -. Korean Association of Woman's History, 9, 1-48.

간을 두어 해결한 것으로 생각된다.

취사와 관련된 반빗간은 주택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궁궐 및 관아건물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궁궐에는 나인처소와 함께 음식을 만드는 곳인 반빗간을 소주방(燒廚房)이라 한다. 지방 관아에 조성된 부엌은 ‘관주(官廚)’라 하는데 관수미 창고, 푸줏간, 부엌, 창고지기 등의 생활공간과 함께 구성되며 관아 내부의 식생활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¹²⁾ ‘관청(官廳)’은 동헌(東軒), 내아(內衙)와 가까이 두어 수령의 식사를 마련하며 내아에서 소비되는 식료품을 제공하는데 효율적인 위치에 있다. 이처럼 궁궐 및 관아의 반빗간과 상류주택의 반빗간은 그 규모 및 명칭의 차이는 있으나 식생활과 관련된 부속영역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같다고 할 수 있다.

III. 반빗간의 배치와 동선의 효율성

1. 반빗간의 배치

연경당, 운현궁의 반빗간은 안채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별도의 영역을 형성하고 있다. 채의 형태는 ㄴ자 형태를 취하며 남향하고 있으나 별도의 뒷마당을 구성하고 있다.

Figure 6. Banbitgan of Yeongyeongdang Located Behind Ancha (The source of the drawing: 주남철(2006), 한국건축사. 서울: 고려대학교출판부)

그러나 연구대상 가옥의 반빗간은 안주인의 생활공간인 정침과 평면상 연결되어 좀 더 밀접하게 배치된다. 반빗간은 ㄱ자, ㄴ자 형태이며 정침 좌·우 또는 후면에 덧붙여 있다. 그러나 반빗간은 평면상 연결되어 있어도 채의 형태 및 담장으로 인해 진입 동선도 나뉘며 채의 위치에 따라 공간적 성격이 구분된다. 이러한 배치상의 차이는 거주자의 신분 차이 또는 대지현황에 따른 영향으로 생각 된다. 연구 대상 가옥에서 반빗간의 배치 형식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타나는데 <Table 2>와 같다.

Table 2. Allocation Type of Banbitgan

Type	Type 1	Type 2
Plan composition		
Relevant houses	小公洞洪高陽家圖形(1) 士大夫家構造配置圖形(2) 鑄洞李惟命參判家配置圖(5)	士大夫家韓屋構造圖(3) 里門內具允鉉家圖形(4) 淸平尉宮平面圖(6)

<Type 1>의 배치 형식을 갖는 가옥은 모두 3집으로 소공동홍고양가(1), 사대부가구조배치도형(2), 주동이유명참관가배치도(5)가 있다. <Type 1>에서 반빗간은 정침 측·후면에 덧붙여 위치한다. 정침은 ㄱ자 형태로 안마당을 향해 돌출되어 있는데 반빗간 사이에 담장을 구획하지 않고도 안마당과 반빗간 마당이 구분된다. 반빗간 역시 ㄱ자 형태로 배치되면서 반빗간 앞 부속마당, 후원, 창고 등 안채 마당이 세분화 된다.

Figure 7. Each Separate Yard by Form of Banbitgan (1,5)

이렇게 담장을 설치하지 않고 채의 배치에 따라 공간의 성격을 구분하는 방법은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한 예로 경복궁 후원에 사대부가의 모습으로 건축된 건청궁(1873년)을 들 수 있다. 곤녕합은 건청궁의 안채로 ㄱ자형 정침이 후원을 향해 돌출되어 있다. 안채 후원에는 북행각을 가로질러 배치하여 복수당과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공간구성의 예는 운현궁의 북행각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는 한정된 대지 안에서 최대한의 공간을 구획하는데 효율적인 방법으로 가옥칸수가 밀집된 안채에서 주로 나타난다.

<Type 2>는 사대부가한옥구조도(3), 리문내구원옥가도형(4), 청평위궁평면도(6) 3집에서 나타나는데 ㄴ자 형태로 배치되어 별도의 영역을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ㄴ자 형태로 반빗간을 구성하면 한정된 대지에 <Type 1>보다 더 많은 실을 구성할 수 있고, 부엌을 통해서만 반빗간영역에 진입할 수 있어 더욱 폐쇄적인 공간이 구성된다. 이러한 모습은 「인평대군방전도」에서도 나타나며 많은 전각들이 밀집된 궁궐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12) Son, K. (2010). Kitchen of the government office and food prepared for local governors in 19th century. Youngnam Culture Institute, 17, 207-236.

Figure 8. Backyard of Gonnyeonghab Divided by the North Wing

Figure 9. Closed Form of Banbitgan (6)

궁궐의 소주방(燒廚房)은 침전영역과 가까이 위치하며 <Type 2>처럼 모자 형태로 배치된다. 소주방(燒廚房)은 나인들의 생활공간과 공간채, 우물 등이 함께 조성되며 행각과 담장으로 둘러싸여 독립된 영역을 구성한다.

Figure 10. Sojubang (燒廚房) at Kyeongbok Palace (北闕圖形)

2. 가사작업 동선의 효율성

반빗간은 부엌을 중심으로 가사작업 동선이 기능화 된 특성을 보인다. 부엌 앞·뒤로 난 문은 부엌 내부의 환기를 용이하게 하고 인접한 마당과 소통하는 통로의 역할을 한다. 그리고 ‘상누하주(上樓下廚)’ 형식의 부엌은 상부에 수장 공간을 두고 하부는 안채 주변에 조성된 마당을 드나드는 통로, 취사, 난방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안채 영역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가져온다.

안채 주위로 조성되는 마당은 부속마당, 후원, 반빗간마당 등이 있는데 연구대상 가옥에서 반빗간 부엌의 위치는 각 마당의 경계에 위치하여 효율적인 동선을 구성하고 있다.¹³⁾

반빗간을 둔 가옥들은 대부분 안채 후원에 장고(醬庫)를 두었다. 후원(後苑)은 장고(醬庫) 이외에 단을 쌓아 화원(花園)을 조성하거나 김치고(沈菜庫), 채마밭을 두어 활용하기도 한다.

장고(醬庫)는 담장으로 둘러싸여 중앙에 협문을 둔다.

13) 본 논문에서 마당의 분류는 반빗간이 안채와 확연히 구분되는 별도의 영역을 형성하고 있는 경우 반빗간에 의해 둘러싸인 마당을 반빗간 마당, 반빗간채 정면에 조성되는 마당을 부속마당, 정침 앞에 조성된 마당은 안마당이라 분류함.

Figure 11. Kitchen of Banbitgan, Located Boundary Between Each Yard (1,4)

장고(醬庫)의 위치와 그 규모는 가옥마다 차이가 있다. 그중 청평위궁의 장고(醬庫)는 가장 큰 면적인데 출입문을 별도로 두지 않고 누고(樓庫, Attic Storage)하부를 통해 드나들 수 있도록 하였다. 반면에 구윤옥가옥(4)은 반빗간 북쪽에 별도로 문을 두어 후원을 향하도록 하였으며 후원 동쪽에 장고를 두었다. 부엌에서 장고(醬庫)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가옥은 소공동홍교양가(1)로 부엌에서 2~3칸 거리에 장고(醬庫)와 침채고(沈菜庫)를 두었다.

Figure 12. Area for Korean Sauces (4,6)

IV. 반빗간의 규모와 공간구성

1. 반빗간의 규모와 실의 구성

연경당 반빗간은 현재 10.5칸의 규모로 3칸 방, 2칸 마루, 2.5칸 부엌, 1.5칸 헛간, 1.5칸 곳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동궐도형을 보면 10칸 규모의 부속채도 추가로 있어 본래 20.5칸 규모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연경당 안채의 규모는 정침, 행각, 반빗간을 합쳐 54칸인데 그중 반빗간이 차지하는 규모가 상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운현궁 반빗간은 16칸 규모로 이로당의 규모가 복행각을 제외하고 29.5칸 인 것을 고려하면 역시 반빗간이 넓은 면적으로 차지하고 있다. 그만큼 가사보조공간의 중요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가옥도면을 통해 살펴본 한성부 상류주택 안채와 반빗간의 규모와 실의 구성을 살펴보면 <Table 3>와 같다.

Figure 13. The Original Form of Banbitgan of Yeongyeongdang in Painting by the Name of Donggwoldohyeong (東關圖形)

<Table 3>에서 안채 규모 및 상당한 부분을 반빗간 영역이 차지하고 있다. 이는 연경당, 운현궁과 비슷한 비율로 안채가 가사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많은 부속 공간이 필요함을 나타낸다.

Table 3. The Space Composition of Banbitgan

No	The Space Composition of Banbitgan (Unit: 間) ¹⁴⁾								
	Area		R	F	Kitchen		S	B	ECT
	An chae	Banbit gan			M	O			
1	45	20	5	4	3	4			4
2	37.5	11.5	1.5			4	6		
3	44	21	6	1		6	5		3
4	59	24	5.5	1		5.5	10		2
5	84.5	21.5	5	2		7		6	1.5
6	86.5	27.5	8	2		10.5	2	5	

평면에서 가장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 실은 부엌(廚)이다.¹⁵⁾ 이는 취사를 주목적으로 하는 반빗간의 역할을 잘 보여주고 있다. 반빗간 부엌은 3~7칸 규모로 매우 큰테 난방을 위한 보조부엌이 1~2칸 규모인 것을 고려하면 규모에 큰 차이를 두었음을 알 수 있다.

보조부엌은 함실아궁이로 하여 취사가 행해지는 부엌과 구별된다. 반빗간을 둔 연경당 역시 안방과 인접한 정침

Figure 14. Multi-Roofed Kitchens (上樓下廚) of Yeongyeongdang and Seokbokheon at Nakseonjae Only Used for Heating

14) R: 방(房), F: 마루(廳), K: 부엌(廚), S: 창고(庫), B: 헛간(廬), M: Multi-Roofed Kitchen(上樓下廚), O: Ordinary Kitchen(廚)

15) 가옥도면에는 난방용 아궁이부엌, 취사가 행해지는 부엌 모두 '廚'라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공간적 성격, 부엌의 규모에 따라 난방만 행해지는 부엌을 보조부엌이라 하고 난방, 취사 모두 행해지는 부엌을 단순히 '부엌'이라 하였음.

부엌을 함실아궁이로 구성하였다. 이는 별도의 반빗간이 있어 정침에서 취사행위가 요구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반빗간 부엌은 '상누하주(上樓下廚)'인 중층으로 구성하여 수장의 기능도 갖추었다.¹⁶⁾ 가장 큰 반빗간 부엌을 둔 가옥은 주동이유명참판가(5)로서 무려 7칸 규모이다. 큰 규모의 부엌은 이용률이 높고 많은 수장 공간이 요구되는 대규모 가사의 취사활동에 적합하다. 이러한 요구는 이후 근대기 부농주거에서도 나타난다. 근대 부농주거의 부엌은 대규모 농사를 경영하기 위해 그 규모가 매우 크다. 부엌 내부에는 부엌방, 곳간, 찬광, 찬마루, 밥청 등을 두어 내부 공간 다양화, 수장 공간 확대 등의 요구를 수용하며 일부 가옥은 부엌과 가까이 별도의 밥청을 시설하기도 한다.¹⁷⁾

부엌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는 실은 방으로 평균 24%를 차지한다. 반빗간은 취사를 목적으로 하는 가사보조공간이지만 반빗아치들이 가사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생활공간도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여성노비들은 안행랑, 가옥 밖 '가람집' 등에서 기거했으나 상류주택에서는 안주인을 보필하는 안잠자기, 복지기 등이나 바느질을 담당하는 침선비, 침모등과 함께 세탁을 담당하는 탕척노비, 세답노비 등의 많은 반빗아치들이 있어 그들의 생활공간 및 가사노동공간으로 안행랑과 반빗간의 방(房), 청(廳) 등이 활용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¹⁸⁾

실제로 연경당, 운현궁, 궁궐 및 관아의 반빗간 역시 방, 청 등의 생활공간을 포함하고 있어 반빗간이 취사 공간뿐만 아니라 반빗아치들의 생활공간도 요구되었음을 뒷받침한다. 연구대상 가옥에서 반빗간에 가장 많은 방을 드린 가옥은 청평위궁(6)으로 모두 8칸을 두었다.

반빗간은 곡식 및 식자재 저장을 위한 많은 수장 공간도 포함된다. 가장 많은 곳간을 둔 가옥은 구운옥가옥(4)으로 수장 공간이 세분화 되어 누고(樓庫)과 곳간(庫間)을 구분하여 구성하였다. 청평위궁평면도(6)는 '고(庫)' 대신 '공(空)'이라 기록하고 헛간 또는 곳간으로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주동이유명참판가배치도형(5)은 반빗간 주위를 둘러싼 줄행랑에 곳간과 헛간을 두었다. 헛간은 좀 더 확장되어 별도의 영역으로 구성하기도 하였는데 반빗간 부엌을 통해서만 진입할 수 있다.

연경당, 운현궁 반빗간과 가옥도형을 통해 본 반빗간은

16) 공간의 성격이 상층 누다락(樓), 하층의 부엌(廚)을 모두 포함하므로 <Table 3>에서 중층부엌은 'M(Multi-Roofed Kitchen)'으로 구분하여 규모를 산출하였다.

17) Moon, S. (2001).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 of the kitchen space in Korean modern wealthy farmhouse. Master's degree thesis, Wonkwang University, p. 72 밥청을 별도로 시설한 가옥으로는 전라북도 익산시 함라마을 내 김안균가옥(1922), 이배원가옥(1917)이 있으나 현재 밥청은 헐리고 없다.

18) Park, S. (1991). A study on the housing life style and space use of Yang-ban during the Chosun dynasty. University of Yonsei, a Doctor's degree Thesis.

배치 형식은 다르지만 규모 및 실의 구성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모두 반빗아치들의 생활공간으로 방, 청을 두고 있으며 큰 규모의 부엌과 수장 공간을 갖추고 있다.

2. 반빗간의 연결 수법

연구대상 가옥의 반빗간은 모두 정침과 반빗간이 평면상으로 이어져 있는데 연결부위에는 주로 부엌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⁹⁾

Table 4. The Composition of Joining Point where the Center Section and Banbitgan

The composition	Relevant houses
Kitchen (廚)	小公洞洪高陽家圖形(1) 士大夫家韓屋構造圖(3) 里門內具允鉉家圖形(4) 淸平尉宮平面圖(6)
Room(房)	士大夫家構造配置圖形(2)
Half-Floor(退廳)	鑄洞李惟命參判家配置圖(5)

이 부엌은 중층으로 구성되기도 한다. 중층 부엌은 부엌 상부에 수장 공간을 마련할 수 있고 인접한 방의 난방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이다. 이에 따라 정침과 반빗간의 연결부위 모습은 부엌의 중층 구성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반빗간 부엌의 중층구성 여부는 평면 규모와 주변 채의 관계에 따라 추정할 수 있다.

Figure 15. Each Size in Flank of Banbitgan (1,2)

소공동홍고양가(1)를 살펴보면 정침과 반빗간 사이를 중층인 상누하주(上樓下廚)라 기록하였다. 편의상 정침을 A, 보칸이 2칸 규모인 수직으로 배치된 반빗간을 C, 그사이를 B라 하면 A와 C 사이는 위계에 따라 큰 높이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B를 중층으로 구성하면 각 채들의 지붕을 자연스럽게 연결시키면서 부엌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정침과 반빗간은 평면상에서 이어지면서 지붕도 서로 연결되어 <Figure 16>과 같은 모습을 취할 것으로 생각된다.

<Figure 16>에서 B부분은 가옥에 따라 측면에서 박공부분을 노출시키거나 높이차 없이 그대로 이어져 중층형

Figure 16. The Connecting Shape Between Banbitgan and Center Section (1)

누고(樓庫)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위계에 따른 높이차가 발생하는 부분에 누고 등의 중층으로 구성하여 연결하는 모습은 의성김씨 대종택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의성김씨 대종택에서 누고(樓庫)는 수장 공간의 역할과 함께 사랑채와 행랑채를 연결하고 안채 영역과 사랑영역을 구분하는 역할을 한다. 역시 누고의 위치는 높은 위계에 있는 사랑채와 가장 낮은 위계인 행랑채 사이에 배치함으로서 중층구성이 가능하다.

Figure 17. Attic Storage of the Head House of Euisungkim's in Andong (The source of the drawing : 주남철(1980), 한국주택건축, 서울: 일지사)

한편 주변 채와의 관계에 따라 반빗간이 단층으로 구성되는 경우는 <Figure 18>와 같은 연결 모습을 취할 수 있다.

Figure 18. The Connecting Shape Between Banbitgan and Center Section (2)

<Figure 18>는 반빗간이 단층으로 조성되는 모습을 추정한 것이다. 사대부가구조배치도형(2)에서 보이는 가옥은 도로에 면한 줄행랑의 일부가 안채까지 이어져 반빗간이 된다. 일반적으로 행랑채가 단층으로 구성되는 것을 고려하면 행랑과 이어지는 반빗간 역시 단층으로 구성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위계가 높은 정침 A와 반빗간 B는 상부구조가 단절되고 지붕에 단차이가 발생하게 되어 <Figure 18>와 같은 모습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19) 마루(廳, 軒)으로 표기한 가옥들 중 '상누하주(上樓下廚)'가 기록되어있거나 또는 주변 채의 구성으로 볼 때 중층형 부엌의 경우 실의 구성을 부엌으로 분류함

Figure 19. The Form of Separate Roof of Unhyeon Palace and Seokbokheon at Nakseonjae

이러한 지붕 형태를 ‘층단지붕’이라 한다.²⁰⁾ 위계에 따른 높이차로 상부구조가 단절되면서 생겨나는 모습이다.

V. 결 론

본 연구는 장서각 소장 가옥도면 중 반빗간의 모습이 나타나는 6가옥과 반빗간 추정 자료를 통해 조선후기 한성부 상류주택 반빗간 공간 구성에 대해 고찰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반빗간 공간적 의미는 부엌과 함께 반빗아치들이 집안일을 수행할 수 있는 별도의 가사보조 공간이다. 조선시대 반빗간의 모습은 연경당, 운현궁, 인평대군방전도(麟坪大君坊全圖), 장서각 소장 가옥 도면에서 볼 수 있으며 조선후기 한성부의 대규모 상류주택에서는 별도의 반빗간을 구성하여 활용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이는 당시 사대부가의 생활사와 관련해 부엌의 활용빈도가 높고 반빗아치들의 가사노동공간이 요구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둘째, 반빗간의 배치는 안채로부터 독립되거나 정침과 연결된 모습으로 나타난다. 연경당, 운현궁 등은 반빗간이 안채로부터 독립되어 배치되지만 가옥도면 반빗간은 정침과 평면상 연결되어 좀 더 밀접하게 배치된다. 이는 거주자의 신분적 차이 또는 각 가옥의 대지현황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가옥도면에서 반빗간은 정침의 좌·우 또는 후면에 덧붙여 배치되는데 채의 위계 및 공간적 성격에 따라 안주인의 거처와 구분된다.

반빗간의 평면은 ㄱ자, ㄷ자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한정된 대지 안에서 최대한의 공간을 구획할 수 있다. 특히 ㄷ자 배치는 ㄱ자 배치보다 더 많은 실을 구성할 수 있어 효율적이며 폐쇄적인 성격을 갖는다.

셋째, 반빗간은 부엌을 중심으로 가사작업 동선이 효율적으로 구성된다. 반빗간 부엌은 반빗간마당, 후원, 부속마당, 장고 경계에 두며 주로 상누하주의 형태로 조성하였다. 상부는 수장 공간, 하부는 통로, 취사, 난방의 기능을 수용하여 효율성과 편의성을 갖추었다.

넷째, 반빗간은 안채의 절반에 가까운 규모를 차지한다. 반빗간에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는 것은 부엌으로 대규모 가사의 취사활동에 적합하다. 이는 1~2칸의 난방 위주의 보조 부엌과 규모에 큰 차이가 있어 반빗간의 기능

이 취사와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 방을 많이 두었는데 취사활동과 함께 반빗아치들의 생활공간 및 취사 보조 행위, 바느질 등의 가사노동공간으로 활용된다. 이외에 반빗간은 수장 공간도 포함한다. 곳간(庫), 헛간(虛, 空), 누고(樓庫) 등을 두며 가옥에 따라 수장 공간을 각각의 영역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다섯째, 연구대상 반빗간과 정침 연결부위 모습은 반빗간 부엌 중층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정침과 반빗간 연결부위에는 주로 부엌을 두는데 높이차를 이용해 중층으로 부엌을 구성할 수 있는 장점 때문이다. 하부는 취사 및 난방, 상부는 수장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어 효율적이다. 그러나 반빗간이 주변채의 관계에 따라 단층으로 조성되면 정침과 반빗간 상부구조가 단절되고 ‘층단지붕’의 모습을 취한다.

이렇게 안채 내부에 별도의 공간을 구성하고 각 채들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반빗간의 모습은 현존하는 상류주택에서 볼 수 없었던 부속공간의 형태이다. 반빗간은 각 가옥의 규모 및 성격, 대지 현황에 맞게 기능적인 가사보조공간을 갖추었다. 반빗간의 배치형식은 가옥의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규모 및 실구성은 비슷하게 나타난다.

본 연구는 반빗간의 모습이 나타나는 6개 가옥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비교대상 역시 한정된 자료로 연구의 한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한성부 상류주택 유구 발굴과 기타 향촌 가옥들의 부속 공간을 비교 연구한다면 반빗간의 더 다양한 모습을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REFERENCES

1. 김동욱 (2004). 연경당 재건시기에 대한 재론. 건축역사연구, 13(4), 213-217.
2. 서울특별시 (1993). 雲峴宮 실측조사보고서. 서울: 서울특별시.
3. 장기인 (1996). 목조(木造). 서울: 보성각.
4. 장기인 (1985). 한국건축사전. 서울: 보성각.
5. 주남철 (2003). 궁집(宮家). 서울: 일지사.
6. 주남철 (2010). 한국건축사. 서울: 고려대학교출판부.
7. 한국학중앙연구원 藏書閣 (2009). 近代建築圖面集-도면편. 서울: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8. 홍경모 저, 이종목 역 (2009). 사의당지, 우리 집을 말한다. 서울: 휴머니스트.
9. 홍승재 (2009). 장서각소장 가옥도면. 近代建築圖面集-해설편. 서울: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10. Han, H. (2008). The life of Yangban women and feminine leadership in the late Chosun era - focusing on 17th century Heng'jang -. Korean Association of Woman's History, 9, 1-48.
11. Jeong, J. (2003). The spatial composition and its active-utilization of Sadaebu house in the 16th and 17th century. University of kyonggi a Doctor's degree Thesis, Suwon.
12. Kim, G. (1994). The influence of family ritual on spatial use and plan type of Yangban houses after the Mid-Chosun dynasty. University of Yonsei a Doctor's degree Thesis,

20) 장기인(1996). 목조(木造). 서울: 보성각. p. 249

- Seoul.
13. Kim, Y. (2001).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multiple story space in □-shaped upper class housings of Chosun dynasty*. University of Seoul a Master's degree Thesis, Seoul.
14. Park, S. (1991). *A study on the housing life style and space use of Yang-ban during the Chosun dynasty*. University of Yonsei a Doctor's degree Thesis, Seoul.
15. Moon, S. (2001).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 of the kitchen space in Korean modern wealthy farmhouse*. Master's degree thesis, Wonkwang University. Iksan.
16. Son, K. (2010). *Kitchen of the government office and food prepared for local governors in 19th century*. Youngnam Culture Institute. 17, 207-237.
17. Hong, S. (1992). *A study on the influence of confucianism on the upper-class houses during the Chosun dynasty*. University of Hongik a Doctor's degree Thesis, Seoul.
18. Hong, S., & Kang, I. (2011). A study on scale and space composition by domains of upper-class housing in Seoul, during the latter part of the Joseon dynasty. *Journal of 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22(1), 95-10.

접수일(2012. 1. 31)

수정일(1차: 2012. 4. 17, 2차: 2012. 5. 30)

게재확정일자(2012. 8. 16)

부 록

연구대상 가옥도면 (필자작도, 안채영역과 반빗간)

1. 小公洞洪高陽家圖形

2. 士大夫家構造配置圖形

3. 士大夫家韓屋構造圖

4. 里門內具元鉉家圖形

5. 鑄洞李惟命參判家配置圖

6. 淸平尉宮平面圖